

『難經滙注箋正』中 臟腑生理에 대한 研究

제강우·윤창열*

The studies on the Chang-Pu and physiological theories of 『Nan Jing hoeju jeonjung』

Je Kang-woo · Yoon Chang-yeu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Chang San-roe re-explained the contents from the 30th question to the 47th question of 『Nan Jing』 which referred to the Chang-Pu and physiological theories as follows through the western theory which was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Chinese theory

1. 『Nan Jing』 referred to the circulation and the coming into being of Yeong-Wi. He denied that it was classified Yeong from Wi or Eum from Yang.
2. He denied that Sam-Cho was separated to three parts and the theory of “Sam-Cho is name only, not shape”, using western medical theory.
3. He denied the view about “Left side is kidney, right side is Myung-Mun” because it was incorrect that kidney was separated to two parts which were Su and Hwa or Eum and Yang
4. Re-explaining the contents of 『Nan Jing』- the portions of heart and lungs, the rising and falling of liver and lungs, the relationships of five viscera and sound color smell taste fluid, the relationships of five viscera and nine hole, the relationships of five viscera and O-Chu, the physiological difference of the old and the young owing to the deflection of Yeong-Wi Chi-Heol- he thought that viewing the human body using theory of Eum and Yang, Five elements(五行) was a far-fetched interpretation, so he denied the traditional Chinese theory which understood human body's organs, physiology, pathology.
5. He explained the contents of 『Nan Jing』- the portions of the colon and the small intestines, the function of the six bowls, the correspondence of Chang-Pu, physical peculiarity of liver, the anatomical aspects which were the sizes, weights, volumes and shapes of the Chang-Pu and the alimentary canal, Chil-Chung-Mun, Pal-Hoe-Hyeol- through western anatomy and physiology in detail.

key words : 『Nan Jing hoeju jeonjung』, Chang-Pu, Chil-Chung-Mun.

I. 緒論

張山雷의 이름은 壽頤이고 字는 山雷이다. 1873 ~1934년에 살았으며 近代 江蘇 嘉定縣 사람이다. 처음에는 과거시험을 준비하여 考據하는 學問에 능하였다. 어머니가 風痺가 蔓延하여 낫지 않아서

*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 교신저자 : 윤창열 · E-mail : yooncy@dju.ac.kr
· 채택일 : 2006년 11월 30일

儒를 버리고 醫를 專攻하였다. 張山雷는 學問을 가르치는 外에 兼하여 醫業을 行하여, 멀리까지 이름을 듣고 診察하러 오는 者는 흔히 의심나고 어려운 大症이 있어서 왔기 때문에 名聲이 더욱 높아 당시 鹽山 張錫純, 慈溪 張國華와 이름을 나란히 하여 그 때에 “三張”이라 불리었다¹⁾.

張山雷의 『難經滙注箋正』은 주로 滑壽의 『難經本義』와 徐大椿의 『難經經釋』에 依據하고, 歷代 名家의 難經注文을 골라서 참고하여 張山雷 本人의 見解를 結合시켜 『難經』原文에 더욱 精確한 校注를 가하였는데 引用資料가 많지만, 약간의 主觀의 이고 斷片的인 論點도 섞여 있다²⁾.

30難~47難에서는 주로 臟腑生理에 대해 論하고 있다. 生理面에서 五臟六腑는 臟과 腑의 사이에 서로 表裏關係가 있고, 五臟과 全身의 皮膚 血脈 肌肉 筋骨 等の 組織, 頭面部位의 五官七竅, 心을 主宰하는 魂 神 意 魄 志 精 智의 七神도 또한 서로 상호 配合의 관련이 있다. 病理面에서는 모두 體表에서 나타나는 聲 色 臭 味 液과 病理變化에서 나타나는 諸般症狀도 모두 臟腑와 密接한 關聯이 있다. 『難經』은 臟腑生理의 方面에서 『內經』의 內容을 五行學說로 歸納하여 說明하였으니 生理 病理 診斷 治法의 韓醫學의 重要한 基本理論을 지니고 있다³⁾. 이렇듯 韓醫學의 基本理論을 形成하는데 重要한 몫을 해 온 『難經』中에서 『難經』이 內經과 대비되는 重要한 特徵인 五行學說을 충실히 담고 있는 臟腑生理를 주로 다루는 30難~47難은 研究할 만한 價値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古醫와 西醫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한 張山雷의 『難經滙注箋正』中 30難~47難의 臟腑生理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難經』의 原文에 대한 懸吐와 考察을 통하여 얻은 바가 있어 報告하는 바이다.

II. 本論

【原文 30】

三十難에 曰 榮氣之行은 常與衛氣로 相隨不^은 然이라 經에 言人受氣於穀하니 穀入於胃하면 乃傳與五藏六府라 五藏六府가 皆受於氣에 其清者는 爲榮이오 濁者는 爲衛라 榮行脈中하고 衛行脈外하야 營周不息하야 五十而復大會하니 陰陽相貫하야 如環之無端이라하니 故로 知榮衛相隨也니라

【考察】

本難은 榮衛氣의 根源과 生成으로부터 所屬部位와 循環 등 일반적인 情況에 대해서 概括的으로 說明하고 있으며, ‘榮衛相隨’라는 內容에서 알 수 있듯이 榮衛氣의 相互作用에 대해서도 言及하고 있으며 『靈樞·榮衛生會』와 類似하다⁴⁾.

張山雷는 우선 營은 血이요, 衛는 氣라는 言及을 하고 營과 衛의 의미에 대해 기존의 學說에 대해 說明하고 營은 水穀之精氣요, 衛는 水穀之悍氣요라고 전개해나간다.

그러나 營衛相隨에 대해 반박하기 시작하는데, 대부분의 注家들은 營衛가 함께 行하는 것이라 하는데 張山雷는 거기서 誤謬가 있다 한다. 그리고 衛를 氣라 하는데 氣가 輕淸한데 어찌 濁하다 하냐고 ‘濁者爲衛’를 반박한다. 또한 陰陽相貫도 批判하고 있다. 결국 ‘營行本遲, 衛行本速’이라는 陣氏의 말을 인용해 ‘血氣兩者로 兩路를 判分해서 스스로 五里霧中에 빠졌다’고 표현한다. 그러나 『類經·經絡類·榮衛三焦』에서는 장산뇌의 의견과 다르다. 張山雷는 經文에 있는 ‘淸營, 濁衛, 脈外, 脈中’은 虛空을 치는 論이라 한다. 또 靈樞 營衛生會篇에는 있으나 本難에 빠져있는 ‘以傳於肺’에 대해 解剖學的인 心和 肺의 생각을 드러내면서 ‘肺’라는 言及을 하는 徐靈胎의 意見이 오히려 잘못됨을 指摘했다.

1難에 있는 “行陽二十五度, 行陰二十五度”는 古人들이 推測한 것이라 하여 行陰行陽하는 區分을 함이 옳지 않다 한다. 결론적으로 本難에서는 營衛의 生成과 循環을 論하고 있는데 張山雷는 營衛,

1) 尹暢烈, 金容辰, 難經研究集成, 大田, 周珉出版社, 2002, p. 100.

2) 尹暢烈, 金容辰, 難經研究集成, 大田, 周珉出版社, 2002, p. 101.

3) 趙學俊, 『難經』의 學術成果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6, p. 50.

4) 金昌圭, 『黃帝八十一難經』中 臟腑生理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6, p. 13.

陰陽의 區別을 한 것을 空虛함으로 보고 있으며 ‘以傳於肺’의 論述에서 西醫의인 思想이 배어 있음을 알 수 있다.

【原文 31】

三十一難에 曰 三焦者는 何稟 何生이며 何始 何終이며 其治는 常在何許 可曉以不잇가
然이라 三焦者는 水穀之道路 氣之所終始也니 上焦者는 在心下 下膈하고 在胃上口라 主內而不出하며 其治는 在臆中이니 玉堂下一寸六分의 直兩乳間陷者가 是라 中焦者는 在胃中脘하야 不上不下라 主腐熱水穀하며 其治는 在臍傍이라 下焦者는 當膀胱上口라 主分別清濁하니 主出而不內하야 以傳導也라 其治는 在臍下一寸이라 故로 名曰三焦라 其府는 在氣街라 一本에 作衝하나라

【考索】

三焦⁵⁾에 대한 論議는 本難 外에도 「第二十五難」 「第三十八難」 「第六十六難」 등에도 있는데 本難에서는 三焦의 部位에 따른 機能과 治療穴을 提示하고 있다.

三焦의 機能에 대해서 本難에서는 “水穀之道路 氣之所終始”라고 簡略히 說明하고 있고 각각의 機能에 대해서 上焦는 “主內而不出”, 中焦는 “不上不下”, 下焦는 “主出而不內”라고 하였다⁶⁾.

張山雷는 三焦의 功用은 上中下 三部를 統稱하며 穀食之輸로 化하여 稟賦받고 生한다 하였다. 그래서 三焦의 命名의 義는 食物精華라 하여 實로 滋長百骸의 根本이라 하였다. 三焦의 重要性을 강조하였다. 消化生氣의 義를 取해 少陽相火에 配屬되고 火가 없으면 熟하지 않으므로 焦라하였다. 그리

나 張山雷는 上中下 三焦로 나누어 말하는 것을 批判하였는데, 三焦의 이름이 胸腹全部를 統括하니까 中에 있다(胃腸管의 功能)라 하였다. 舊學들이 消火機關을 오로지 脾와 胃라 하는데 그에 대해 실재로는 ‘飲食이 胃로 들어가서 小腸으로 가서 吸收되고 다시 大腸으로 가서 남은 液이 吸收되고 다시 내려가 二便이 排泄된다.’는 西醫의 概念을 根據로 하였다. 그래서 ‘胃上口之間이 上焦며 胃中脘之間이 中焦며 膀胱上口之間이 下焦’로 나눈 것은 아니다 하였다. ‘其治’에 대해서는 그 大略의 部位를 말함이지 臆中, 天樞, 陰交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였다. 곧 滑伯仁이 ‘治’를 그 治療穴이라 한 것은 아님을 지적하였다. 古人은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는데 滑伯仁이 『靈樞·營衛生會』, 『甲乙經·營衛三焦篇』을 引用해서 說明하고 胃中을 “傍胃口”로 “下於大腸를 “下於大小腸”로 바꾼 것 또한 誤謬라 하니 결론적으로 受盛, 消化, 排泄로 三焦를 分屬하는 것은 의미 없다 한다. ‘府在氣衝’의 의미에 대해 氣衝은 衝脈의 發源之處이고 그 것은 元氣의 根이 되니, 三焦는 元氣로 運化할 수 있고 氣가 모이는 곳이 發源之地가 된다하여 徐靈胎의 의견을 肯定하였다. 또 ‘膀胱上口에 分別清濁하야 主出而不納’은 大小便이 나뉘는 길이 ‘膀胱之上口’에 있다고 말한 것인데 이것은 실제로는 ‘溺之上流’가 腎에 와서 輸하고 膀胱으로 간 것이니 小腸과 관계가 없으므로 『難經』說은 生理에 맞지 않고 水道之發源은 胃에서 얻는 게 맞다 하였다. 또 다른 說은 徐靈胎가 膀胱上口는 蘭門이어서 ‘清은 膀胱으로 가서 溺이 되고 濁은 大腸으로 가서 滓穢가 된다하여 蘭門之下에 二便分道가 있다’는 說인데 이 또한 蘭門은 원래 小腸大腸의 接處인데 大小腸이 그 사이 確연히 區分됨(머물러 接觸)이 없고 膀胱에 통할 수 있는 구멍이 하나로 分別하지 못함을 몰라서 하는 소리라 하였다. 결론적으로 西醫인 合信氏『全體新論』를 引用해 徐靈胎가 말하는 小腸 下에 구멍이 두개 있다는 說을 부인하였다. 張山雷는 이어서 『難經』만 誤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하여 他 書籍에 대해서도 批判을 가했다. 곧 『難經』의 이 條는 믿을 수 없다하여 그러므로 『全體新論』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難經』의 膀胱上口

5)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所, 1987, p. 244.: 韓醫學의 臨床 應用面에서 본다면, 三焦의 概念은 實際로 두 가지가 있다. 그 一種은 곧 「內經」의 決瀆之官, 水道出焉의 意義로, 곧 三焦는 膀胱과 서로 連繫되어 있는 一條의 水道로, 이의 疾病은 小便異常과 有關하다. 다른 一種은 三焦를 人體의 三個 部位 名稱으로 應用하는 것이다.

6) 金昌圭, 『黃帝八十一難經』中 臟腑生理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6, p. 24.

은 卽爲小腸下口이니 水液由是滲入者'는 아니나라 하였다.

‘壽頤按’으로 張山雷는 자신의 생각을 계속하여 說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近代에 말하는 三焦는 唐容川의 說이 가장 盛行하는데 ‘三焦는 油膜’이라 하니 그 뜻을“循下焦而滲入膀胱”등의 句로부터 깨달았다. 唐容川은 西醫의 生理學說인 ‘膀胱上源의 小便은 輸入之管이 있어 兩腎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이미 알았으나 腎以上의 水는 어디서 오는 것은 명확히 알지 못해서 ‘兩腎과 類似한 것에 싸이는데 그 것은 板油之中에 藏하고 板油之中은 大·小腸外粘連之油膜이다.’라는 見解를 나타냈다. 그러나 張山雷는 이에 대해 兩腎輸溺之管이 위로 길이 없으면 水가 모이는 것이 油膜 中에 滲注하여 오는 것이 不可하니 어떻게 兩腎에 處하고 이르는지 批判하였다. 또한 『內經』에 “下焦者, 別廻腸하여 注膀胱而滲入”, “循下焦而滲入膀胱”로 밝혔는데 ‘腎臟사이에 무수히 많은 油膜이 있어 滲水入腎 한다.’라 하면 이 說은 계속하여 나온 談論인 ‘膀胱上口이나, 하구나, 있나, 없나’의 계속된 分爭거리이니 中西學理와 類似하나 또 고풍에 빠질만 하다 하였다. 近來 三十年의 著書의 說이 모두 唐容川을 따르나 唐의 說은 元人袁坤厚氏舊說로부터 와서 理想적인 作用이라 批判한다. 또 袁이 말하는 ‘隔膜脂膏之內에 五臟五腑之隙云云’은 上中下 三部를 統稱해서 말하는 것인데 實體가 없다하고 唐容川이 油膜이 三焦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膈上의 心肺에는 油膜이 全無하고 膈下는 끊어져 油膜이 서로 같지 않아서 油膜이 三焦라 하는 說을 不定하였다. 결론적으로 張山雷는 『靈樞·營衛生會』에 의해 上中下 三部로 三焦를 나누는 것을 批判하고 있다. 곧 張山雷가 既存의 三焦說에 대하여 西醫의 解剖學的인 概念으로 새로운 接近을 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는데 큰 意味가 있다고 생각된다.

【原文 32】

三十二難에 曰 五藏俱等 而心肺獨在膈上者는 何也

然이라 心者血이오 肺者氣로래 血爲榮이오 氣爲衛니 相隨上下를 謂之榮衛라하니 通行經絡하야 營周於外 하나라 故로 令心肺在膈上也니라

【考察】

本難의 내용은 臟腑의 位置에 대한 論說로 『內經』에는 그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臟腑의 位置에 대한 論說은 本難 말고도 『第三十三難』과 『第三十五難』에 보인다. 本難의 質問은 “무엇 때문에 心肺만이 胸腔內에 存在하여 腹腔內에서 存在하고 있는 여러 臟腑들과는 隔離되어 있는가?”하는 것인데 이 質問에 대한 답은 本難 外에 뒤에 나오는 『第三十五難』의 解釋까지 두 가지가 있다. 즉 本難에서는 心肺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榮衛의 二氣는 前述한 것처럼 經絡을 順行하고 있고 經絡은 腹腔內에 있는 臟腑의 밖에 있는 것으로 心肺는 다른 臟腑들과는 隔離되어 홀로 膈上에 存在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第三十五難』에서는 橫膈膜의 아래는 大小腸, 膀胱 등의 不潔한 물건을 받아가는 府가 存在하는 곳이므로 榮衛와 直接的인 關係가 있는 心肺라는 高貴한 臟器가 位置할 곳이 아니며 橫膈膜의 位에 居하여서 下部의 濁氣가 膈上에 薰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第三十三難』에서는 肝과 肺의 位置를 比較하여 論說하고 있는데 肝은 비록 陽臟이지만 陰氣가 비교적 많아서 下焦에 居하고 肺는 비록 陰臟이지만 陽氣가 比較的 많기 때문에 上焦에 居하고 만일 사람이 죽으면 肝은 本來의 木의 性質을 回復하여 뜨게 되고 肺는 金性을 드러내어서 가라앉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⁷⁾.

張山雷는 心主血하고 肺主氣하니 心肺가 全體의 綱領이 되어 內外百骸를 統率하여 몸의 主宰가 되어 위에 居한다는 것에 異議를 提起한다. 『難經本義』에 있는 陣氏의 ‘父母’의 譬喩가 心肺의 生理를 밝히기엔 不足하다고 한다. 『素問』에 있는 ‘膈盲之上, 中有父母’는 肺의 貴함을 의미한다고 본다. 즉 張山雷는 濁氣가 肺를 지나 呼出濁氣하고 吸入清氣해서 心房으로 돌아와 清潔한 血이 되는 西醫의

7) 本問祥白, 難經之研究, 正言出版社, 1965, pp. 221-222.

概念을 들어 心과 肺의 關係가 密接해서 心肺만 膈上에 있다고 보고 곧 呼吸에 유리해서 그렇다 하였다. 역시 이 難에서도 張山雷는 西醫의 觀點으로 心肺를 보고 있으며 膈上에 있는 이유 또한 心肺生理를 根據로 바라보고 있다.

【原文 33】

三十三難에 曰 肝青象木하고 肺白象金한데 肝得水而沈하고 木得水而浮하며 肺得水而浮하고 金得水而沈은 其意何也오

然이라 肝者는 非爲純木也니 乙角也오 庚之柔라 大言陰與陽이오 小言夫與婦니 釋其微陽하고 而吸其微陰之氣하야 其意樂金하고 又行陰道多하니라 故로 令肝得水而沈也니라 肺者는 非爲純金也니 辛商也오 丙之柔라 大言陰與陽이오 小言夫與婦니 釋其微陰하고 婚而就火하야 其意樂火하고 又行陽道多하니라 故로 令肺得水而浮也니라 肺熟而復沈하고 肝熟而復浮者는 何也오 故로 知辛當歸庚이오 乙當歸甲也니라

【考察】

本難의 內容은 『內經』에는 보이지 않는데 本難을 언뜻 보면 肝과 肺가 물에 뜨고 가라앉는 理由를 묻고 대답한 단순한 文章으로 誤解하기 쉽다. 하지만 歷代의 註釋家들은 本難의 內容을 단순하게 理解하려하지 않고 哲學的인 바탕을 둔 論說들을 첨가하고 있다⁸⁾.

張山雷는 肝의 體用은 木에만 全的으로 合德하지 않으므로 純木이 아니라 하고 木은 五音으로 하면 角이어서 角은 重濁해서 가라앉고 在下라 하였다. 또 木은 春에 旺盛해 陰雨는 陽에서 처음 나오므로 陰氣는 이미 盛하고 陽氣는 오히려 微하여 陰中の 少陽이라 하여 微陽이고 陰道가 많으니 沈하고 在下라 하였다. 肺의 體用은 金에만 全的으로 合德하지 않으므로 純金이 아니라 하고 金은 五音으로 하면 商이어서 商은 輕清해서 뜨고 在上이라

하였다. 또 金은 秋에 旺盛해 陽은 陰에서 처음 들어가므로 陽氣는 이미 盛하고 陰氣는 오히려 微하여 陽中の 少陰이라 하여 微陰이고 陽道가 많으니 浮하고 在上이라 하였다. 陣氏注에 ‘肺屬太陰’에서 ‘太’는 ‘少’라고 指摘하였고 諸家의 注에서 乙庚丙辛으로 陰陽夫婦를 配合함을 牽強附會라 하고 ‘肝熟’, ‘肺熟’에서 ‘熟’은 ‘熱’이라 하였다. 張山雷는 의견을 直說的으로 더 나아가 論하였는데, 肝이 木이 되고 肺가 金이 되고 心이 火가 되고 腎이 水가 되는 五行配屬에 대해 ‘清夜自思하면 寧不可笑’라고 신랄하게 批判하는 데서 張山雷의 思想을 느낄 수 있다. 臟氣升降과 生理에 대해 肝脈은 關에서 잡고 沈하며 肺脈은 寸에서 잡고 浮하다는 것을 가지고 說明하였으며 肝이 陰中の 少陽이 되고 肺가 陽中の 少陽이 됨을 陰陽消長の 理致를 가지고 說明하였다. 또한 乙庚丙辛의 概念을 가지고 陰陽配合함을 또 다시 批判하였고 ‘熟’이 ‘熱’되어야함을 제차 指摘하였다. 곧 張山雷는 干支의 夫婦五行配屬의 醫學的 活用に 대해서 懷疑的이었다⁹⁾.

【原文 34-1】

三十四難에 曰 五藏에 各有聲色臭味하니 皆可曉知以不잇가

然이라 十變에 言 肝色靑이고 其臭臊이고 其味酸이고 其聲呼이고 其液泣이며 心色赤이고 其臭焦이고 其味苦이고 其聲言이고 其液汗이며 脾色黃이고 其臭香이고 其味甘이고 其聲歌이고 其液涎이며 肺色白이고 其臭腥이고 其味辛이고 其聲哭이고 其液涕이며 腎色黑이고 其臭腐이고 其味鹹이고 其聲呻이고 其液唾이라하니 是 五藏의 聲色臭味也니라

【考察】

本難의 前半部에서는 五臟과 聲色臭味液에 대한 論述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論述은 『素問·陰陽應象大論』 『素問·宣明五氣』 『靈樞·九針論』 등의 篇에도 나타나 있다¹⁰⁾.

8) 金昌圭, 『黃帝八十一難經』中 臟腑生理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6, p. 44.

9) 宋美令, 張山雷의 醫學思想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0, p. 22.

10) 金昌圭, 『黃帝八十一難經』中 臟腑生理에 관한 研究, 大

張山雷는 滑伯仁이 ‘聲色臭味’에 ‘液’이 빠져있다는 것에 全的으로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十變’은 衍文이라 보고 있다. 滑伯仁의 注에 四明陣氏가 말하는 ‘肺主聲, 肝主色’云云은 옛적엔 없었다고 하고 ‘五臟錯綜하야 互相有之’또한 經에 없었더라 한다. ‘心之聲’에 대해서는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在聲爲笑’라 하여 滑伯仁이 말한 ‘言’이 ‘揚’이 됨을 지어낸 것이라 하고 徐靈胎가 말한 ‘散而揚’이 ‘火之象’이 됨을 같이 批判하고 있다. 五臟의 聲에서는 『素問·宣明五氣』과 陰陽論이 달라 五臟이 病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달라 區別하니 徐靈胎가 說한 것이 그러하다고 한다. ‘涕’는 ‘泣’이고 肝의 液이 되고 脾의 液은 ‘涎’이 된다고 보고 古文에서 가끔 區別없이 誤謬가 난 것이라 하였다.

【原文 34-2】

五藏有七神^{하니} 各何所藏耶^{잇가}

然이라 藏者는 人之神氣所舍藏也니 故로 肝藏魂^{하고} 肺藏魄^{하고} 心臟神^{하고} 脾藏意與智^{하고} 腎藏精與志也^{하니라}

【考察】

本難의 後半部에는 七神이 五臟에 貯藏되어 있다는 內容을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主로 五臟과 七神 사이에 密接하게 內在된 關係에 대하여 說明하고 있다¹¹⁾.

張山雷는 神이란 것은 不測한 것으로 알 수 없다 하여 各 臟이 무엇을 藏한다고 分屬할 수 없다가였으며 다만 “藏者, 人之神氣所舍藏”로 足하고 甲乙經 精神五臟論에 있는 “生之來謂之精, 兩精相搏謂之神, 隨神往來謂之魂, 並精出謂之魄, 心有所憶謂之意, 意有所存謂之志, 因慮處物謂之智”라 하였다. 이렇게 滑伯仁의 注를 批判하였다. 徐靈胎의 注에서는 ‘七神’에 대해 역시 神이란 것은 虛靈이니 數를 정할 수 없어 ‘五’가 可能하면 ‘七’또한 반드시 可能한 게 아니므로 의미 없으며 靈明作用이 어떤

지 說明함을 不定하였다. ‘魂’이 ‘知覺之靈處’는 說明할 수 있으나 ‘魄’이 ‘運動之能處’와 ‘神’이 ‘陰陽合體之妙機’에 대해서는 不定하였다. 또 ‘魂屬陽’, ‘魄屬陰’에서 『記』에서 말하는 ‘魂升魄降’으로 說明하는 것이 可能하나 거기서의 ‘魂’은 ‘營氣’이고 ‘魄’은 ‘形體’를 뜻하므로 概念이 다르므로 큰 誤謬라 指摘하고 『第三十三難』에서 肝이 陰雨가 되고 肺가 陽이 됨을 예를 들며 오히려 반대된다고 하였다. 곧 本難에서 張山雷가 陰陽五行論을 批判의 으로 보고 있는 觀點을 다시 엿볼 수 있다.

【原文 35-1】

三十五難에 曰 五藏各有所^{하여} 府皆相近^{이로라} 而 心肺獨去 大腸小腸^{으로} 遠者^는 何也^오

然이라 經에 言心榮肺衛^{하여} 通行陽氣^{하니} 故居在上^{이라} 故로 大腸小腸은 傳陰氣而下^{하니} 故로 居在下^라 하니 所以相去而遠也^{니라}

【考察】

人體에 臟腑가 配合되는 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配合되는 臟과 腑는 그 거리가 서로 비슷하다. 하지만 肺와 大腸, 心과 小腸의 사이는 서로간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에 대한 說明이 本難 첫머리의 要點이다¹²⁾.

張山雷는 臟과 腑의 表裏關聯을 中醫로서는 스스로 알 수 없고 西醫의 概念을 빌려 알 수 있다 하였다. 肝膽은 우선 一體이고 自然히 連絡된다하였는데 西醫의 說로 그 肝膽의 病도 確實히 區別할 수 있고 腎膀胱, 脾胃도 쉽게 알 수 있다 하였다. 心肺에 대해서는 특이한데 宗래의 ‘陽氣, 陰氣’로 說明함은 옳지 않다고 보고 心에 대해서는 心은 血液의 總樞이므로 血管이 終日 運行하여 百體를 營養하므로 점차 消耗하니 食物의 精液이 있어야 하는데 小腸의 營養分 吸收가 血管으로 들어가므로 心小腸이 自然히 密接한 關係라 說明하였다. 肺大腸의 關係는 張山雷 또한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古人은 뜻이 있었으나 그 內容이

田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6, p. 58.

11) 金昌圭, 『黃帝八十一難經』中 臟腑生理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6, p. 59.

12) 金昌圭, 『黃帝八十一難經』中 臟腑生理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6, p. 68.

빠져 後世人들이 辛金, 庚金으로 說明한 것은 잘못되었다 하였다. 本難에서 張山雷가 舊說에 대해서 無條件의으로 따르지 않고 合理的으로 思考하였음을 알 수 있다¹³⁾. 특히 心小腸의 表裏關係에 대한 論述에서 張山雷의 獨創의인 思考가 돋보인다.

【原文 35-2】

又諸府者는 皆陽也로 淸淨之處로에 今大腸小腸胃與膀胱이 皆受不淨은 其意何也아

【考察】

本難에서는 臟腑의 陰陽淸濁에 관한 論說이 다음에 나오고 六腑의 機能과 臟腑의 相合關係에 대해서 마지막에 言及하고 있다¹⁴⁾.

張山雷는 本難의 陰陽淸濁의 물음에서 실제로는 臟腑全體가 모두 運行作用을 하기 때문에 淸淨을 말하는 게 의미없다 하고 腸胃膀胱이 不淨을 받는데 潔淨이라 하면 生理가 어찌 進行되느냐고 반문한다. 膽에 대한 徐靈胎의 注도 批判하고 있는데 西醫學者가 말하기를, ‘膽汁이 小腸에 들어가서 消化를 돕는다’하여 膽이 ‘無施無受’하므로 홀로 淸淨하다는 것은 틀렸다하였다. 곧 本難에서 既存의 藏象學說¹⁵⁾의 膽의 概念을 批判하며 西醫의 解剖生理學說의 膽의 概念을 論述하는 것과 같이 張山雷는 既存 學說에 자신의 意見을 더하고 있다.

【原文 35-3】

然이라 諸府者謂是는 非也니 經에 言小腸者는 受盛之府也오 大腸者는 傳寫行道之府也오 膽者는 淸淨之府也오 胃者는 水穀之府也오 膀胱者는 津液之府也라하니 一府에 猶無兩名이라 故로 知非也니라

小腸者는 心之府오 大腸者는 肺之府오 胃者는 脾之府오 膽者는 肝之府오 膀胱者는 腎之府며

【考察】

張山雷는 계속해서 本難의 “諸腑者, 謂是非也”에서 “一腑猶無兩名, 故知非也”까지 古籍에는 있으나 不論이라 하였고 역지로 解說함을 批判하였다. 淸淨之府가 오직 膽이라는 滑伯仁의 注에 대해 臆說이라 하고 “膽爲中正之官, 決斷出焉”은 膽의 生理를 모르는 것이라 하면서 勇敢과 膽大함은 서로 관계없다 하고 “膀胱爲津液之腑”에서 ‘津液’은 食物精華와 같은 滋養의 의미가 있으므로 西醫의 概念을 끌어다가 “膀胱之溺는 直是淸濁之廢料”라 하여 當치않다 하였다.

中醫學의 위기의 時代인 西醫東漸 時에 張山雷의 獨創의인 論述은 그 時代의 要求로 인해 나름의 意味가 있지만 誤謬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다.

中醫 基礎 理論의 現代의 研究 方法 中 하나의 잘못된 구분은 바로 解剖 概念과 藏象 概念이 섞여서 分明하지 못하게 心, 肝, 脾, 肺, 腎의 다섯 字가 中西 두 醫學의 學術 체계의 교류 가운데에 濫用되고 있다는 것이다. 例를 들어 肝主疏泄藏血을 解剖學의 肝腸이 疏泄을 主管하고 血을 貯藏한다고 잘못 理解했다. 中醫藏象學說 中에서 한 臟腑의 生理 機能은 現代 解剖 生理學 中 몇 개 臟器의 生理 機能을 表現할 수 있다. 現代 解剖 生理學 中의 한 臟器의 生理 機能은 또한 藏象學說에서의 몇몇 臟腑 生理 機能의 일부로 나눌 수 있다. 이런 種類의 認識은 단지 하나의 補助的인 說明일 뿐, 더욱 發展되어 中醫 科學 思想 原則이 되지는 못했다. 中西醫 臟腑 名稱의 相同은 西醫東漸時에 用語의 翻譯으로부터 造成되었고, 이러한 錯誤는 代대로 中醫 研究者들에게 先入觀을 誘發시켰다. 解剖學의 心, 肝, 脾, 肺, 腎은 對應하는 藏象學의 心, 肝, 脾, 肺, 腎과 關係가 密接하고 심지어 同等하게 취급되었다. 이러한 認識은 일찍이 中西匯通 學派에서 처음으로 단서를 이룬다. 이런 形而上學의인 곳에 現代 生理學의인 智識을 利用한 研究方式은 결코 中醫 理論을 系統的으로 드러낼 수 없

13) 宋美令, 張山雷의 醫學思想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大 學院 博士學位論文, 2000, pp. 21-22.

14) 金昌圭, 『黃帝八十一難經』中 臟腑生理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6, p. 68.

15) 中醫學論文翻譯모임 옮김, 論文으로 보는 中醫學 總論, 서울, 法仁文化社, p. 176, 2001.: 藏象은 臟腑, 經脈, 形體, 官竅의 形態 構成, 生理活動 法則 및 그 相互 連繫를 研究하는 學說이며, 이는 『內經』의 한 構成部分으로 또한 中醫理論의 基本 內容이다.

으며 正常的 科學 思想의 發展에 障礙가 되었다¹⁶⁾.

【原文 35-4】

小腸은 謂赤腸이오 大腸은 謂白腸이오 膽者는 謂靑腸이오 胃者는 謂黃腸이오 膀胱者는 謂黑腸이니 下焦所治也니라

【考察】

色으로 나누어 五腑를 나누는 것에 대해 張山雷는 五腑 모두가 腸인데 五行의 色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라하고 “下焦所治”에서 滑伯仁이 ‘膀胱만 該當된다’는 注는 억지로 붙힌 것이라 하였다.

【原文 36】

三十六難에 曰 藏各有一耳어늘 腎獨有兩者는 何也오

然이라 腎兩者는 非皆腎也라 其左者爲腎이오 右者爲命門이니 命門者는 諸神精之所舍오 原氣之所繫也라 男子以藏精하고 女子以繫胞라 故知腎有一也니라

【考察】

本難은 腎이 두 개라는 解剖學的인 特徵으로부터 水藏인 腎의 작으로서 命門을 提示하면서 命門의 機能이 “諸神精之所舍오 原氣之所繫也라 男子以藏精하고 女子以繫胞라”라고 提示하였다.

本難에서 各家의 注釋에 차이가 있는 것은 本難에서 論한 ‘左腎右命門說’에 따른 命門의 實體에 관한 점이다¹⁷⁾.

張山雷는 腎은 비록 둘이나 그 體用을 둘로 나눌 수는 없다하였다. 命門은 “精神之所舍오 原氣之所系也”이고 “精氣神之根柢”이니 역시 腎은 區別할 수 없다 하였다. 三十九難에 ‘腎中水火陰陽’으로 둘

로 나눈 것 또한 生理에 맞지 않다하였다. 그리하여 滑伯仁의 水火로 나누어 左右에 配屬함을 그르다하고 또한 徐靈胎의 命門이 腎이 아닌 說도 또한 잘못된 것이라 보고, 결국 ‘左水右火’는 難經의 本來 뜻이 아니라 認識하고 있다. ‘男子藏精、女子系胞之說’은 西醫가 말하는 生殖器官인데, 理想的인 말이라 하고 本難의 화두인 ‘命門’의 實體에 대해 否定하며 徐靈胎의 그 實體를 說明하고자 한 노력에 대해 牽強附會한다고 評價한다. 張山雷는 結論의으로 左腎右命門說에 대해 否定하는데 水로써 體를 삼고 火로써 用을 삼는 것은 一臟中에 진실로 이 陰陽 二氣를 갖추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二氣는 兩腎 中에 包含된 것이니 또한 先天太極에 陰陽이 나뉘지 않은 상태와 같아 반드시 一水一火로 나눌 수 없다 하였다¹⁸⁾.

【原文 37-1】

三十七難에 曰 五藏之氣는 於何發起며 通於何許오 可曉以不잇가

然이라 五藏者는 當上關於九竅也라 故肺氣通於鼻하니 鼻和則知香臭矣라 肝氣通於目하니 目和則知白黑矣라 脾氣通於口하니 口和則知穀味矣라 心氣通於舌하니 舌和則知五味矣라 腎氣通於耳하니 耳和則知五音矣라

【考察】

本難은 『靈樞·脈度』의 內容과 類似하며 약간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그 내용은 五臟과 上七竅와의 關係와 五臟六腑가 不和하였을 때에 올 수 있는 病理的인 現象과 마지막으로 關格에 관한 簡略한 언급을 하고 있다¹⁹⁾.

張山雷는 本難의 첫 節에 대해 『甲乙經·一卷·五臟六腑官篇』의 文인데 지금 『甲乙』은 『難經』과 같아서 『靈樞』에 있는 “五臟常上關於七竅”라는 句는 없어서 徐靈胎가 『靈樞』와 달라 批判했다한다. 『靈

16) 中醫學論文翻譯모임 옮김, 論文으로 보는 中醫學 總論 中 藏象學의 五臟과 解剖學의 五臟에 대한 구분, 서울, 法仁文化社, pp. 184-186, 2001.

17) 金昌圭, 『黃帝八十一難經』中 臟腑生理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6, p. 75.

18) 宋美令, 張山雷의 醫學思想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0, p. 99.

19) 金昌圭, 『黃帝八十一難經』中 臟腑生理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6, p. 87.

樞』와 달라서 『靈樞』에 根據해 바로잡는게 맞다고 보고 있다.

【原文 37-2】

五藏不和하면 則九竅不通하고 六府不和하면 則留結爲癰하니라

【考察】

두 번째 節에서 ‘臟不和則竅不通’은 맞다고 할 수도 있으나 臟이 腑에 連及하는데 어찌 臟과 腑로 나누어 그러한가 하고 ‘腑不和而留爲癰’은 生理病理에 맞지 않다고 批判하며 滑伯仁이 틀리다 하고 徐靈胎의 注 또한 五里霧中으로 빠진 것이라 한다.

【原文 37-3】

邪在六府하면 則陽脈不和하고 陽脈不和하면 則氣留之하고 氣留之하면 則陽脈盛矣니라 邪在五藏하면 則陰脈不和하고 陰脈不和하면 則血留之하고 血留之하면 則陰脈盛矣니라 陰氣太盛하면 則陽氣不得相營也라 故曰格이오 陽氣太盛하면 則陰氣不得相營也라 故曰關이라 陰陽俱盛하면 不得相營也라 故曰關格이니 關格者는 不得盡其命而死矣니라

【考察】

셋째 節에서 『甲乙經』一卷에서 ‘陽脈盛, 陰脈盛’의 “盛”이 『甲乙』, 『靈樞』에서 “氣”로 되어 있으니 肯定하고 徐靈胎가 『素問·六節臟象論』에서 人迎一盛, 二盛, 三盛, 四盛 모두 말해서 文章을 만든 것이니 그 推測이 맞다고 한다. 그러나 ‘陽盛屬之六腑, 陰盛屬之五臟’에 대해 張山雷의 종래의 생각인 ‘陰陽을 강제로 나눈 것이다.’는 論理로 說하여 批判하고 있다. 그리고 ‘關’은 ‘關閉不通’이고 ‘格’은 ‘格拒不納’인데 ‘關’과 ‘格’모두 비슷한 뜻이라서 區別할 수 없으나 ‘陰陽’으로 해서 한편으로는 偏盛하고 한편으로 偏切한다고 해서 단절되면 반드시 죽는다고 한 뜻은 疑心할 여지는 없으나 ‘陽盛은 곧 格이고 陰盛은 곧 關’이라 陰陽을 억지로 나눈

것에 대해서는 批判했다. 그러므로 仲景이 ‘關’과 ‘格’에 대해 바꿔서 말하더라도 의미없다 하였다.

【原文 37-4】

經에 言 氣獨行於五藏 不營於六府者는 何也오 然이라 夫氣之所行也는 如水之流하야 不得息也라 故陰脈營於五藏하고 陽脈營於六府하니 如環之無端이라 莫知其紀하고 終而復始하니 其不覆溢이라 人氣는 內溫於藏府하고 外濡於腠理하니라

【考察】

넷째 節에서 이 節은 『靈樞·脈度篇』에 있으나 『甲乙·奇經八脈篇』과 『太素·陰陽躡脈篇』에 따로 있어서 躡脈에 대해 論한 것인데 앞의 두 節은 臟腑陰陽에 대해 論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맞지 않다 하였다. “氣營五臟, 不行六腑”는 陰躡脈만 말한 것이지 陰陽氣血 모두를 말한 것이 아니어서 후을 잘못 잘라서 발생한 誤謬라 하여 徐靈胎의 議를 肯定한다. “陰脈營於五臟하고 陽脈營於六腑”는 陰躡, 陽躡脈을 말한 것이지 六陰六陽經을 말한 것은 아니어서 滑伯仁이 ‘陰經營於五臟하고 陽經營於六腑’라 釋한 것은 큰 誤謬는 아니나 『甲乙』, 『靈樞』全文을 세심히 읽지 않아 생긴 誤謬라 한다. “終而復始” 以下에 대해 『甲乙』, 『太素』, 『靈樞』에서 “其流溢之氣, 內溉臟腑, 外濡腠理”라 되어 있으나 “而不復溢人氣”는 없어서 “其氣”는 躡脈이고 역시 앞 節의 關格과 상관없다 하여 ‘流溢之氣’를 ‘而不復溢’로 억지로 고쳐서 關格과 聯關되게 한 것으로 批判하며 滑伯仁과 四明陳氏의 注를 誤謬라 한다. 계속하여 壽頤按에서 張山雷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關格은 하나는 格居於上이요, 하나는 關閉於下이니 각각 하나의 病이요, 두 病이 동시에 人身에 모이는 것은 아니다. 하나는 陰盛이요, 하나는 陽盛이니 두 病理가 상반되므로 脈이 그 것에 응해 하나는 左가 右보다 盛하고 하나는 右가 左보다 盛하며 더 심하면 세 배, 네 배 以上이다. 『內經』에서 人迎一盛, 二盛, 三盛, 四盛 以上은 모두 假說이니 어찌 一時에 陰陽同病하여 氣口脈이 人迎脈보다 數倍 盛하고 人迎脈이 氣口脈보다 數倍

盛할 수 있는가 하여 四明陣氏의 注를 批判한다. 壽頤又按에서 다시 張山雷는 周氏를 批判하는데 周氏가 『甲乙』, 『靈樞』 蹻脈一節을 세심히 읽지 않아서 나온 誤謬라 보고 『甲乙經』一節은 蹻脈에 대한 說解이니 衛氣로 說明한 것을 틀리다하여 “晝行於外經, 夜行於五臟, 而不及六腑”은 奇語라 하였다. 또 衛氣之行이晝에는 外經을 돌아 臟腑에는 氣가 없고 夜에는 五臟을 돌아 腑와 經絡에 氣가 없다는 것은 理致에 맞지 않다 하여 衛氣之行을 區別하는 것이 의미없다라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또 앞에서 말했듯이 張山雷는 “而不復溢人氣”는 억지로 갖다 붙힌 것으로 關格과는 聯關이 없다는 생각을 되풀이 한다. 이어 張山雷는 『素問』과 『靈樞』에 대해서 唐人(王冰)에 의해 自作되고 自引된 것을 批判하며 그에 根據한 것 또한 잘못 되었다고 指摘하였고 古書가 잘못 傳寫됨을 한탄하며 古書를 잘못 믿어 생긴 誤謬를 批判한다.

여기서 張山雷의 醫學思想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張山雷는 學文을 함에 있어 醫學經典에 대한 研究와 考證을 매우 重視했다. 그가 말하기를 『靈樞』, 『素問』, 『難經』은 醫學을 논함에 始祖로 볼 수 있고, 『甲乙經』, 『脈經』은 역시 우리 醫學의 大家로 볼 수 있으며, 비록 後人이 集大成했지만 이는 모두 上古로부터 전해온 微妙한 말과 뛰어난 意味를 찾아볼 수 있다하였다. 『難經匯注箋正』에는 醫經의 理致, 精密함과 숨겨진 意味에 대한 詳細한 考證이 담겨있다. 그러나 그는 『內經』의 전해 내려온 歲月이 長久하여 內容의 眞僞가 混雜되어 있음과 文字 역시 正訛分別이 어려워 後學이 공부하기에 매우 곤란하다고 깊이 우려했다. 일찍이 말하기를 『素問』, 『本草經』의 起源은 最古이니 필히 秦始皇의 焚書坑儒 以前에 있었던 것으로 文字가 素朴 簡潔하고 古色古香함에 꾸밈없고 純全한 氣象이 있으니 魏晉六朝人이 능히 模倣할 수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르나 그 中에 學文이 淺薄한 사람이 끼워 넣은 것이 적지 않고 잘못 옮겨 적은 것은 考證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고 하였다²⁰⁾.

【原文 38】

三十八難에 曰 藏唯有五^오 府獨有六者^는 何也^오
然이라 所以府有六者^는 謂三焦也^라 有原氣之別焉
이니 主持諸氣^라 有名而無形^{하야} 其經屬手少陽^{이나}
此外府也^라 故言府有六焉^{이라}하니라

【考察】

本難은 五臟六腑가 되는 까닭에 대해서 質問을 하였는데 그 對答으로 三焦가 하나 더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後世의 註家들은 本難의 質問과는 별도로 本難중 三焦의 生理的 特徵을 說明하고 있는 部分에 대해서 重點을 두고 註解를 하고 있다²¹⁾.

張山雷는 五臟이라 하였는데 手厥陰心包絡이 있어 六陰之經이 되는데 五臟이라 한 것은 아니다라고 批判을 가하기 시작하고 六腑라는 것은 五腑 외에 三焦가 있어서 그러한 것이라 한다. ‘原氣之別하야 主持諸氣’에서 그 功用을 실제적으로 상세하게 풀어놓을 수 없다 하였다. “原氣”에 대해 스스로 發源之地가 있어 三焦에 歸屬하여 無形이라 하고 外腑라 함은 실제 증명할 수 없고 虛妄된 것이라 措辭라 한다. 三焦를 『靈樞』를 引用해 文理厚薄, 出入貫布之說로 說하려는 徐靈胎의 노력을 虛妄하다 하고 그 部位를 알 수 없다 한다. 上之受盛하고 中之消化하고 下之排泄로 三焦作用을 인식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도 西醫의 概念인 ‘受臟하는 것은 胃요, 消化는 胃腸이요, 排泄은 直腸, 膀胱’로 반박해서 ‘上下를 두루 散布하고 臟腑를 總括하여 그 象을 정할 수 없어 三焦가 無形’이라는 說은 아니라 한다. 張山雷는 手厥陰心包絡이 있어 六陰之經이 되어 五臟이라 한 것을 批判하였는데, 여기서의 五臟은 藏象學說에서의 五臟이며 六陰之經은 經絡學說의 概念임을 張山雷가 看過하였다고 생각된다.

【原文 39】

三十九難에 曰 經言府有五 藏有六者^는 何也^오

20) 宋美令, 張山雷의 醫學思想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0, p. 96.

21) 金昌圭, 『黃帝八十一難經』中 臟腑生理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6, p. 93.

然이라 六府者는 正有五府也라 五藏은 亦有六藏者
니 謂腎有兩藏也라 其左爲腎이오 右爲命門이니 命
門者는 精神之所舍也라 男子以藏精하고 女子以繫
胞하야 其氣가 與腎通이라 故言藏有六也라하니라
府有五者는 何也오
然이라 五藏各一府하니 三焦亦是一府나 然不屬於
五藏이라 故言府有五焉이라하니라

【考察】

本難은 六藏五府라는 새로운 臟象體系에 대한 質
問을 하고 있는데 그 對答은 命門과 三焦의 生理
를 言及하는데 특히 命門의 生理를 자세히 言及하
고 있다²²⁾.

張山雷는 腎은 두개라서 六臟이라 한 것에 神奇
하나 不可하지는 않다 하였다. 곧 張山雷는 左腎右
命門說에는 同義하지 않으나 解剖學的인 概念으로
腎이 兩쪽에 있음을 根據로 六臟을 否定하지는 않
는다. 그러나 張山雷의 이러한 생각은 本節의 核心
을 把握하지 않고 단지 解剖學으로만 생각하는 憂
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心包가 心의 宮城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古人들이 理想해서 말한 것이
나 心과 同體로 生理를 잘 안 것이라 評價한다. 三
焦가 ‘決瀆水道’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肯定하나 五
臟에도 屬하지 않고 五腑에도 屬하지 않는 曖昧模
糊한 말이라 한다.

【原文 40】

四十難에 曰 經에 言 肝主色 心主臭 脾主味 肺主
聲 腎主液이라하야는 鼻者는 肺之候로대 而反知香臭하
고 耳者는 腎之候로대 而反聞聲하니 其意何也오
然이라 肺者는 西方金也라 金生於巳하며 巳者는 南
方火오 火者는 心이오 心主臭라 故令鼻知香臭하니라
腎者는 北方水也라 水生於申하며 申者는 西方金이오
金者는 肺오 肺主聲이라 故令耳聞聲하니라

【考察】

22) 金昌圭, 『黃帝八十一難經』中 臟腑生理에 관한 研究, 大
田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6, p. 99.

本難의 內容은 五臟의 所主를 提示하면서 ‘心主
臭’하고 ‘肺主聲’하는 것과 ‘鼻’와 ‘耳’의 關係에 대
해서 論述하고 있다. 本難의 內容은 『內經』에서는
考察해 볼 수 없는데 本難에서는 ‘心鼻’와의 關係
와 ‘肺耳’와의 關係를 ‘五行長生’의 理致에 따라서
說明하고 있다²³⁾.

張山雷는 ‘心主臭하고 肺主聲’이면 ‘心通於鼻하고
肺通於耳’가 되어 너무 황당하고 자주 바뀌어 말이
안 된다고 하고 『素問』, 『甲乙』에도 그런 內容은
없다 하였다. ‘肺主聲’에 대해서 ‘言語發聲’으로 말
하는데 ‘聲’이 ‘喉’에서 나오므로 肺와 關係가 있고
‘耳’로 ‘聲’을 들으니 이를 說明할 수 있다하나 반
드시 그러한지 說明하기는 어렵다 한다. ‘腎主液’에
대해서는 西醫學說과 같이 膀胱이 溺을 說하는 것
이 腎에서 나오나 『素問』에서도 “腎爲胃關하야 關
門不利則聚水”라 하여 古人들도 알지 못하지는 않
았다한다. 그러나 ‘汗血涎唾涕淚’ 모두가 腎에만 해
당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다섯 가지 主하는 것이
억지로 五行을 부쳐서 뜻과 멀어서 ‘聞聲知臭之理’
는 믿을 수 없다 하고 滑伯仁, 徐靈胎가 衍文했다
한다. 徐靈胎의 注에 대해서는 ‘肝陽肺陰’은 도리어
반대라서 『第三十四難』 注와 같이 다시 틀렸다고
하고 ‘能視能言는 從內出外하고 能臭能聽은 從外入
內’ 또한 批判하고 徐靈胎의 說解가 支離함이 심하
다 하였다. 本難에서 『第三十五難』의 心小腸의 表
裏關係 論述처럼 肺主聲의 論述에서 다시 張山雷
의 獨創的 思考를 엿볼 수 있다.

【原文 41】

四十一難에 曰 肝獨有兩葉은 以何應也오
然이라 肝者는 東方木也오 木者는 春也니 萬物始生
에 其尚(1)幼小하고 意無所親이라 去太陰尚(2)近
하고 離太陽不遠하야 猶有兩心이라 故有兩葉하니 亦
應木葉也니라

【考察】

本難은 肝이 兩葉인 理由에 대한 問答을 가지고

23) 金昌圭, 『黃帝八十一難經』中 臟腑生理에 관한 研究, 大
田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6, p. 105.

肝의 生理的인 特徵을 說明하고 있다²⁴⁾.

張山雷는 肝은 木에 應해 草木의 莖질이 갈라지는 初期에 양 잎이 씩트는 譬喩는 理想의 말이라 하나 譬喩가 可能하긴 하다 하였으나 ‘萬物始生之初에 尚在幼小하니 而意無所親하여 乃有兩心’은 文章의 의미를 좁게 한다 하여 웃을 일이다 하였다. ‘去太陰尚近하고 離太陽不遠’에서는 心이 陽中의 太陽이라 譬喩하면 역시 ‘少陽尚近’이라 할 수 있고 ‘離少陰不遠’이니 心이 둘임을 어찌 알 수 있나 하였다. 이 또한 注家들이 敷衍한 것이라 批判하였다.

【原文 42-1】

四十二難에 曰 人腸胃長短에 受水穀多少는 各幾何요

然이라 胃는 大一尺五寸이요 徑五寸이요 長二尺六寸이라 橫屈하여 受水穀三斗五升이니 其中常留가 穀二斗 水一斗五升이라 小腸은 大二寸半이요 徑八分分之少半이요 長三丈二尺이라 受穀二斗四升 水六升三合合之大半이라 回腸은 大四寸이요 徑一寸半이요 長二丈一尺이라 受穀一斗 水七升半이라 廣腸은 大八寸이요 徑二寸半이요 長二尺八寸이라 受穀九升三合八分合之一이라 故腸胃는 凡長五丈八尺四寸이요 合受水穀八斗七升六合八分合之一이라 此가 腸胃長短과 受水穀之數也니라

【考察】

本難은 『難經』이 著述되던 당시의 解剖學을 研究하는데 重要한 資料이다. 本難의 六腑에 관한 內容은 『靈樞·絕穀』과 『靈樞·腸胃』의 內容과 大同小異하다²⁵⁾.

張山雷는 첫 節 全文의 原本은 『甲乙經·腸度腸胃一篇』이고 『素問』에는 없고 『針經』九卷之中에서 나오니 皇甫가 『甲乙經·序』에서 말하는 것이어서 옛 中醫에서 전해져 오는 것이라 하였다. 다만 『靈

樞』二篇篇目에서 命名하는 게 비슷하지 않으나 옛 中醫에서 長短의 尺寸과 水穀의 容量을 말하는 것이 옛적의 度量으로 同身寸法으로 한 것이어서 지금의 生理로 말하면 많이 다르다 하였다. 위에 대해 너비와 직경은 同身寸法으로 하면 肯定하나 길이에 대해서는 否定하였다. 이어서 張山雷는 胃의 容積에 대한 생각을 나타낸다. 新學說(西醫)에 根據해 ‘胃의 容積이 3升 정도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지금과 옛날의 升斗가 같지 않아서 옛적의 三은 지금은 一이라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나 ‘어떻게 水穀을 三斗五升 받아들이나’ 하며 의문을 提起한다. ‘비록 水穀이 胃에 같이 들어오나 胃는 다만 穀, 肉, 채소, 과일을 消化하고 水는 消化하지 않는다.’하여 合信氏의 『全體新論』의 ‘胃는 본디 化水之功은 없고 또 出水之路도 없어 茶酒가 胃에 들어오면 적게 吸收되어 지나간다.’를 引用하였다. 胃에 가는 血管이 아주 많아서 茶水를 吸收하는 게 可能한데 血管에 들어와 肝을 지나 心에 들어가 온 몸을 運行해 肺로 인해 上出하여 氣가 되고 皮膚로 인해 滲出하여 汗이 되고 나머지가 腎으로 들어가서 溺이 된다 라고 生理를 밝혀 胃가 容水 하는 것이 一斗五升 됨을 批判하였다. 이 때문에 여름에 물을 많이 마시면 汗 역시 많이 나는데 만약 汗이 많이 나지 않으면 小便이 되어 나간다 하여 예를 들어 차를 많이 마신 사람은 자주 小便을 누고 술은 많이 마신 사람은 汗을 많이 흘리고 小便을 많이 누다 하였다. 즉 水가 胃에 들어가면 먼저 빠져 나가니 穀, 肉의 消化와는 같지 않다 하였다. 또 胃中에는 水液이 있지 않으나 胃中에서 스스로 津液을 만들어 穀, 肉을 消化시켜서 滋養之力을 얻는다라고 生理를 밝혔다. 이 津液에 대해 張山雷는 飲食物을 消化 시키는 功能을 가진 酸한 味를 가진 胃液이라 하여 만약 水가 오래 胃中에 있으면 胃津이 淡해져서 飲食物을 消化시키는 힘이 약해져서 해롭다 하였다. 또 大便漉泄하는 病에 胃에 水가 들어가면 모두 吸收 못해 飲食物의 消化가 다 되지 못해서 水가 腸에 들어가서 水泄하게 되고 완전히 消化 못한다는 것이 맞다고 肯定한다. 덧붙여 西洋의 助胃藥은 動物의 胃酸을 製鍊해서 얻은 것이라 한다. 그리하여 古人들이 胃

24) 金昌圭, 『黃帝八十一難經』中 臟腑生理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6, p. 110.

25) 金昌圭, 『黃帝八十一難經』中 臟腑生理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6, p. 125.

既容水하고 또 小腸大腸이 모두 容水한다는 말을 否定하였고 『甲乙』의 本節은 虛構의 말이고 生理에 맞지 않다 하여 2千年동안 아무도 바로 잡지 못해 國家의 學問의 큰 羞恥라고 극렬히 批判한다. ‘小腸의 길이가 三丈二尺, 回腸의 길이는 二丈一尺, 廣腸의 길이는 二尺八寸, 곧 小腸에서 肛門까지 五丈五尺八寸’이 되는 것에 대해 張山雷는 論한다. 張山雷는 『全體新論』에서 大小腸을 합해서 身長의 6倍라고 하는데 옛적에 同身寸法으로 하면 身長이 七尺五寸이라서 여섯 배하면 四丈五尺이 되므로 古說과 맞지 않다 하였다. 또 『新論』에서 回腸의 아래가 곧 直腸이니 古說에서 말하는 廣腸이라 하고 合信氏가 말하는 大腸은 上中下로 나뉘어 3번 돌아가서 돌아가는 길이를 尺으로 해서, 直腸이 곧 二尺八寸의 길이라는 것은 아니라 하였다. 이어 張山雷는 壽頤按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개해 나간다. ‘大腸은 3번 돌아가니 1회는 밑에서 아래이고 2회는 오른쪽에서 왼쪽이고 3회는 위에서 밑으로 가니 곧 直腸이고 또 飲食物이 直腸으로 전해서 食料中の 精液이 腸中吸液管으로 다 吸收된다.’고 說했다. 이로써 張山雷이 現代의 上行, 橫行, 下行結腸을 제대로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張山雷는 吸液管에 대해 전개해나간다. (合信氏의 『全體新論』에 이르기를 ‘小腸은 두루 겹쳐져 돌아 內皮가 꺾여 그 무늬가 현미경으로 엿보면 무늬 위에 뾰족한 쌀 알 같이 뾰뾰한 것이 있어 곧 吸管의 구멍 끝이다. 吸管은 飲食物의 精液을 吸收하는 管이니 아주 많아서 腸 뒤의 夾膜 사이에 散布되어 있어 膜과 같은 색이라 細微하게 보기 어렵다’) 이어 張山雷는 消化하는 기전을 說明해나간다. (食後에 안에 精液이 있어 하얀 실같이 보이기 시작해서 夾膜에 小核이 아주 많으니 吸管이 두루 돌아 겹쳐 쌓여 이루어진 것이고 모든 吸管은 脊處 근처에 붙어 합쳐서 하나이니 이름하여 精液總管이라 한다.(張山雷注: 腰骨 第二節에 있다.) 脊骨 以上에 붙어 頸骨 第七節에 이르고 아래로 屈轉해서 左頸手로 들어가 血이 돌고 管이 모인다.(張山雷注: 會는 兩管이 서로 會合하는 곳이다) 心에 直達하여 胃로 말미암아 飲食物이 小腸頭에 이르고 膽汁과 甜肉汁이 會合하여 점점 흘러지고 점점 걸러진다.

(張山雷注: 榨은 油를 거르고 糖을 거르는 뜻이니 飲食物의 精液을 거르는 것을 말한다.) 精液을 걸러 나오니 색이 흰색이고 油와 같아 管에 吸收되어 처음 稀淡하나 점점 들어와 진해져 會管으로 運行해 混해져 血이 된다. 남은 것은 찌꺼기가 되어 大便이 된다.) 古人이 廣腸이 水穀하는 것이 九升三合八分合之一이라는 것에 대해 張山雷는 肯定하는데 徐說로 보면 胃容量은 三升이고 이것이 한 끼 中的 量이고 하루 세 끼로 계산하면 飲食을 먹어 胃에 들어가 胃가 實하면 腸이 虛해지고 腸에 내려가서 腸이 實해지고 胃가 虛해져 大略 3끼를 貯藏하니 9升이라 하였다. 그러나 腸胃가 合受水穀 八門七升六合에 대해서는 否定하였다. 徐靈胎가 ‘水穀이 大腸에 들어갈 때에 이미 따로 清液을 泌해서 膀胱으로 들어가니 오직 糟粕이 廣腸에 들어가 大便으로 나오니 廣腸이 穀을 運受하나 水는 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張山雷는 徐靈胎가 膀胱의 오줌이 小腸下口를 따라 온다고 생각해서 그렇다 하였다. 그러나 本節의 原文에 回腸이 水를 받아들이는 게 七升 半이라는 句라 되어 있는데 이와 같으면 膀胱上口가 回腸의 아래와 廣腸의 위가 되는 것으로 그 說을 否定하였다. 그러나 本節의 經文은 비록 皇甫謐 以前에 나온 것이나 실제로 作者의 見解가 徐靈胎와 같은 시각이니, 古醫學이 진실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評價한다. 또 徐靈胎가 말하길 ‘受水穀之總數가 本節과 다르고 『靈樞·平人絕穀』에서의 九斗二升一合合之大半가 맞다.’라 한 것에 대해 張山雷는 胃腸의 水穀之總數로 하면 徐靈胎 說과 같으나 이 것이 『甲乙經』一篇에 있고 徐靈胎가 『靈樞』로 根據를 들었는데 『甲乙經』이 『靈樞』가 上古로부터 전해져 오는 眞本이라고 誤認해서 그렇다 한다. 張山雷는 계속해서 徐靈胎를 批判한다.

【原文 42-2】

肝은 重二斤四兩이라 左三葉이오 右四葉이니 凡七葉이라 主藏魂이니라 心은 重十二兩이라 中有七孔三毛오 盛精汁三合이라 主藏神이니라 脾는 重二斤三兩이오 扁廣三寸이오 長五寸이라 有散膏半斤이오 主裏血이

오 溫五藏이라 主藏意니라 肺는 重三斤三兩이라 六葉兩耳니 凡八葉이라 主藏魄이라 腎은 有兩枚라 重一斤一兩이라 主藏志니라 膽은 在肝之短葉間이라 重三兩三銖이오 盛精汁三合이니라 胃는 重二斤二兩이라 紆曲屈伸하야 長二尺六寸이오 大一尺五寸이오 徑五寸이오 盛穀二斗水一斗五升이니라 小腸은 重二斤十四兩이오 長三丈二尺이오 廣二寸半이오 徑八分分之少半이라 左回疊積十六曲하야 盛穀二斗四升 水六升三合合之大半하니라 大腸은 重二斤十二兩이오 長二丈一尺이오 廣四寸이오 徑一寸이라 當齊右迴十六曲하야 盛穀一斗水七升半하니라 膀胱은 重九兩二銖이오 縱廣九寸이라 盛溺九升九合하니라 口는 廣二寸半이니라 唇至齒는 長九分 齒以後至會厭는 深三寸半이니 大容五合이니라 舌은 重十兩이오 長七寸이오 廣二寸半이라 咽門은 重十二兩이오 廣二寸半이오 至胃가 長一尺六寸이라 喉嚨은 重十二兩이오 廣二寸이오 長一尺二寸이오 九節이라 肛門은 重十二兩이오 大八寸이오 徑二寸大半이오 長二尺八寸이오 受穀九升三合八分合之一이니라

【考察】

張山雷는 本節은 『甲乙經』에서 온 것이나 그 원천은 周秦時代 古籍에서 온 것이다. 그러나 合信氏가 말하길 肝의 重量은 四十八兩이고 肝은 그 體가 堅實해서 무거워서 그렇다 한다. 古人의 二斤四兩은 三國時代의 權衡으로 한 것이고 지금으로 하면 十二兩에 불과하니 理想의 말이다. 『史記正義』에서 四斤四兩은 역시 二十三兩에 불과하니 결국 실제의 半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秦漢의 古書는 唐以後의 度量으로 하면 안된다. (唐以前의 權量은 대략 唐以後의 三分之一이다. 張山雷의 『古今藥劑權量考』에 상세히 말했고 『談醫考證集』에 편입했다.) 張山雷는 ‘心有七孔’은 發血, 回血의 管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管은 心房을 貫通해 孔이라 하였다. 『全體新論』을 인용해 張山雷는 心右上房은 回血總管이 두 개로 나뉘어 하나는 위로 향하고 하나는 아래로 향하며 心右下房은 大血管이 하나 있어 肺의 血脈管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心左上房

은 回血管이 네개 있어 肺와 통하고 肺의 回血管에서 나와 左右 두 개이고 心은 下房에 血脈總管이 하나 있어 赤血이 心으로 말미암아 出發하는 總路이니 心의 血管이 여덟 개이고 구멍 역시 여덟 개라서 일곱 개라고 하는 것은 틀렸다하였다. 中國의 舊說은 七孔이라 항상 말하니 列子가 이르길 ‘心에 六孔流通하고 一孔不達’이라 하였는데 心이 七孔이라 하는 것은 古人들이 習慣의으로 말한 것이라 그 眞實을 믿을 수 없다 하였다. 또 三毛라고 하는 것도 모르겠다고 하고 ‘盛精汁三合’은 心房中에 藏하는 血로 말하는 것이나 血을 精汁이라 말할 수 없다 하였다.

‘脾는 左에 居位하여 第九肋骨에서 第十一肋骨之內에 있고 形은 笠掌과 같아 外邊半圓은向肋하고 內邊深窩은 向胃하고 古人들은 扁廣三寸이요 長五寸이다.’에 대해 張山雷는 肯定하였으나 ‘脾重二斤三兩’에 대해 脾의 體積이 어찌 肝과 비슷하냐고 理에 맞지 않다 하였다. 또 ‘散膏半斤’에 대해서도 否定하였다. 그러나 西醫들이 말하길 胃 後에는 甜肉一條가 있어 길이가 약 五寸이고 頭大向右하고 尾尖向左하고 正中에 一汁液管이 있어 小腸에 비스듬히 들어가고 上口之傍에서 생긴 汁이 口中津水와 같아 古人들이 말하는 바 散膏半斤이니 대개 이것을 말한다 하였다. 즉 古人들이 말하는 脾가 甜肉을 말하는 것으로 小腸에 運入하니 원래 膽汁과 같이 小腸에 같은 길로 들어가서 消化를 돕는 것이니 古人들이 脾司運化한다는 뜻과 符合하고 그런 즉 脾重二斤四兩이라 하는 것은 甜肉의 分量을 말하는 것이라 하였다. 甜肉은 中醫 中에 없는 이름이나 『廣韻』에 “?”자가 있어서 音이 飴이고 일러 豕息肉이라 하고, 『正字通』에서 豕脾息肉이고 『類篇』에서 作“臄”이라 한다. 지금 우리 지방 사람들이 臄脂油라 하니 古人이 稱하는 脾臟이어서 甜肉이니 脾의 色이 黃이고 脾의 味가 甘인데 오직 甜肉이 色味 모두 合하니 이 說이 맞다 하였다. 張山雷이 다시 말하기를 甜肉의 汁이 小腸에 運入하니 飲食物 中의 脂肪質을 化한다. 그래서 古人이 脾가 助胃한다라 稱해서 飲食物을 消化한다라 하는 것이 이와 같다 하였다.(張山雷의 『合信氏全體新論疏證』에서 상세히 說했다.) ‘裹血溫五臟’에 대

해 張山雷는 『內經』에서 말하는 肝藏血, 脾統血의 뜻인데 西醫가 말하는 脾生白血로 하면 뜻이 통한다 하였다. 단 ‘裏血’에 대해 張山雷는 뜻을 풀 수 없고 ‘臧意’는 『史記正義』에서 “藏榮”이니 營血의 營이니 뜻이 역시 비슷하다 하였다. 肺에 대해 張山雷는 肺의 形質은 가장 輕虛하니 古人들이 무게가 三斤三兩이라는 것은 理致에 맞지 않으며 그 葉이 右三左二이고 실제 肺는 上部가 심하게 尖銳하지 않아서 分岐하지 않으므로 總稱해서 八葉이라 한 것은 믿을 수 없다 하였다. 腎에 대해 張山雷는 『全體新論』에 根據해서 길이는 약 三寸이고 너비는 약 半寸이고 두께는 七八分이고 사람에 따라 크기가 다르고 무게는 二兩五錢에서 三兩六錢이라 하였다. 壽頤按에서 張山雷는 合信氏가 대개一枚의 重量을 말하는데 兩枚를 합쳐서 計算하고 옛날의 三은 現在의 一로 推測하면 古人들이 말하는 ‘重一斤一兩’은 서로 符合한다하나 『新論』의 『內經』에서 ‘兩枚共重一斤二兩’이 奇語라고 한 것은 西洋人들이 中國의 옛날 權衡을 몰라서 그렇다 하고 批判한다. 合信氏가 말하길 膽은 肝液의 囊이니 右肝內傍의 아래에 連繫되었고 肝은 左右 二葉이라 左葉은 胃의 위에 있어 작고 짧고 右葉은 아래는 空虛해서 크고 길어 ‘膽在肝之短葉間’은 실제와는 反對라고 張山雷는 말한다. ‘重三兩三銖’ 計算하면 비슷하나 膽汁은 飲食物을 消化하는데 쓰여 때때로 차고 허해지니 일정한 重量이 없으니 古人이 말한 것은 理想이고 確論이 아니라 하였다. ‘盛糖汁三合’은 膽汁이나 心之血도 精汁이라 하고 膽汁도 精汁이라 하니 區別할 수 없다 하였다. ‘小腸左回疊積’은 『史記正義』에서 回積이라 하였는데 壽頤按에서 張山雷는 小腸은 돌아 重疊해서 싸여 曲折이 많고 胃의 下口가 小腸과 接하니 右에서 左로 이르니 左回라 해서 맞다고 肯定하고 大腸과 小腸의 接處가 實在로는 齊右之下와 少腹右角이라 하였다. 『難經』本節에서 當齊右回라 하니 정도에 지나치다라 하였다. 다만 ‘齊右’에 ‘下’를 加하여야 맞고 『甲乙』, 『靈樞』에 모두 “當齊左環回”라 하니 틀렸다 하였다. 또 大腸은 曲이 많지 않으니 小腸과의 接處가 右跨骨內에 있어 위로 행해서 肝下에 이르러 꺾이고 左行해서 가로로 胃底를 通過하고

脾에 이르러 밑으로 가서 左季肋內斜下로 가서 肛門에 到達하여 三折이니 古人이 十六曲이라 한 것이 小腸과 같다고 한 것이 웃을 만 하다고 批判하였다. 傳寫者가 틀리게 하여 古人의 眞本이 아니어서 역시 바르게 말할 수 없다하며 本節의 誤謬를 指摘하면서 『甲乙』, 『靈樞』의 本節의 말에 腸胃所人至所出하여 長六丈四寸四分하고 回曲環反三十二曲의 等句가 있어서 大小腸이 각 十六曲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誤謬가 난 것에 後人이 다시 總結하여 句를 加한 것이라 더욱 웃을 만 하다고 批判한다. 張山雷는 膀胱盛溺은 원래 일정함이 없어서 그 膜이 굳고 부드러운 것이 항상 됨이 없어서 스스로 舒縮할 수 있으니 오줌이 적으면 오그라들고 많으면 부른다. 그러나 뜻으로 推測하면 가장 부풀어 오를 때에도 斗에는 이르지 않으므로 ‘膀胱의 盛溺九升九合’을 批判한다. 咽門은 곧 食管이니 咽에서 胃까지 이어서 一尺六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틀렸다 한다. 喉嚨은 곧 肺管이니 『全體新論』에서 길이가 四寸이고 둘로 分岐되어 左管은 二寸이어서 左肺에 비스듬히 入하고 右管은 一寸이어서 右肺에 入한다 하였는데 分岐되었는지 아니든지 計算하면 가장 긴 것도 불과 지금의 六寸도 되지 않고 古人들이 말하는 一尺 二寸이라고 하는 것은 肺前部位로 計算해도 그 數는 나올 수 없다 하였다. 또 食管은 厚重하고 비교적 길고 肺管은 輕虛하고 비교적 짧으니 重量이 각 十二兩이라고 한 것은 틀리다 하고 『史記正義』, 『甲乙』, 『靈樞』에서 咽門이 十兩이라고 한 것은 厚重하면서 긴 것이 도리어 輕하다 하고 輕虛하면서 짧은 것이 도리어 重하다 한 것이니 말도 안 된다 하였다. 上節에서 廣腸의 길이가 二尺八寸이라는 것은 이미 그 數가 나올 수 없음을 張山雷는 밝혔고 本節에서 肛門의 길이가 二尺八寸이라는 것은 直腸全部를 肛門이라 稱하여 한 것이니 더 웃을 만 하다고 批判하였다. 또 너비는 八寸이라 하고 直徑이 二寸 太半이라 하고 길이가 二尺八寸인데 또 그 重量이 十二兩이라 하면 앞의 食管, 氣管과 같은 重量이 되니 말도 안 된다고 극렬히 批判한다. 곧 以上の 『第四十二難』에서 더욱 西醫東漸時의 代表的 醫家인 張山雷의 卓越한 識見이 두드러지게 보인

다. 하나 하나 씩 왜 그러하며 그 너비, 直徑, 길이, 容積을 따져가는 모습이 큰 意味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그 時期에 누구 보다 앞서 既存의 中醫學說에 西醫의 解剖 生理學을 바탕으로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第三十五難』에서도 밝혔듯이 藏象學 概念과 西醫 解剖學 概念을 混同하여 思考하고 있는 誤謬도 있음을 밝힌다.

【原文 43】

四十三難에 曰 人不食飲^{하야} 七日而死者는 何也^오 然이라 人胃中엔 當有留穀二斗水一斗五升이라 故平人이 日再鬪하고 一行二升半하니 日中五升이라 七日엔 五七三斗五升 而水穀盡矣^라 故平人不食飲 七日而死者는 水穀津液이 俱盡即死矣^{니라}

【考察】

本難은 前難의 內容을 이어 胃의 容量을 說明하였고 아울러 人體에 있어서 水穀에서 얻어지는 津液이 얼마나 重要的가에 대한 言及을 하고 있다²⁶⁾.

張山雷는 胃 容積이 三斗五升으로 하루 두 번 廁에 가서 五升을 내보내어 七日이면 三斗 五升을 내 보내어 七日 飲食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說에 대해 腸胃容積을 다 흡하면 九斗二升으로 小腸 回腸廣腸의 容積 모두를 흡한게 아니므로 죽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또한 스스로 矛盾에 빠짐을 몰라 하는 소리라고 批判하였다.

【原文 44】

四十四難에 曰 七衝門은 何在^오 然이라 唇爲飛門이오 齒爲戶門이오 會厭爲吸門이오 胃爲賁門이오 太倉下口爲幽門이오 大腸小腸會爲關門이오 下極爲魄門이라 故曰七衝門也^{니라}

【考察】

本難은 水穀의 通路에 關鍵이 되는 重要한 部位

를 ‘衝門’이라고 하면서 提示하고 있다²⁷⁾.

張山雷는 七衝門이 『素問』, 『甲乙經』에는 보이지 않는데 生理에 대한 內容으로 周秦時代에서 나오는 것으로 臆說은 아니라 전제한다. 飛門, 戶門은 訓詁字義로 하면 세밀한 의미가 없으며 會厭에 대해 論하고 있다. 즉 會厭은 喉와 氣管支 사이의 열고 닫히는 것을 말하며 『全體新論』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舌根의 아래에 앉은 氣喉이고 뒤는 食喉라서 飲食이 氣喉에 못 들어가게 하는 氣喉의 구멍의 덮개를 會厭이라 하였다. 구체적으로 ‘軟하고 무른 뼈 조각 같고 微卷하고 滑하여 舌根아래 있고 半舌과 같은 形態’라 說明하고 作用에 대해서는 ‘飲食을 삼키면 會厭이 닫히고 지나가면 다시 열려 呼吸한다’라 하는데 만약 飲食을 삼킬 때 웃거나 말하면 氣喉가 닫히지 않아 飲食과 물이 안으로 들어가 ‘호흡불안’해서 반드시 기침해서 나오게 해야 안정된다고 말하고 있다. ‘호흡’에 대해서 다시 張山雷는 說하고 있는데 氣喉에 물이 막혀서 나오는 소리라 하고 만약 飲食을 먹을 때 웃거나 말하면 위험함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즉 『難經』에서의 ‘吸門’은 呼吸을 그치고 통하게 하는 門으로 깊은 뜻이 있다고 한다. 賁門에 대해서는 徐靈胎가 말한 ‘賁은 猶奔也니 物入於胃하야 疾奔而下太倉也’에 대해 ‘賁’은 ‘奔’의 뜻이 아니며 太倉은 곧 胃이고 ‘入胃而下太倉’또한 말도 안된다 하고 張山雷는 飲食이 胃上口로 들어가 幽門, 關門을 거쳐 점차 消化되는 生理를 說明하며 ‘賁’은 ‘大’의 의미라 한다. ‘幽門’에 대해서는 胃下에 있다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라 보고 ‘關門’의 ‘關’은 가로막는다는 뜻인데 徐靈胎가 注한 ‘關截分別’에 대해 關門의 關이 大小便의 二路를 區別하니 臆見이라 評價한다. ‘魄門’의 ‘魄’에 대해서는 ‘糟粕의 粕’이라 하고 肛門의 이름이 魄門이라는 것에서는 排泄糟魄之門戶라 하여 肯定하였다. 또한 徐靈胎의 ‘鬼門’이라는 注에 대해서는 肯定하나 구체적 說明이 없어 後學들이 疑心을 가질 만하다고 評價하고 徐靈胎가 말한 ‘肺臧魄하고 肛門이 大腸에 연결되어 肺

26) 金昌圭, 『黃帝八十一難經』中 臟腑生理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6, p. 131.

27) 金昌圭, 『黃帝八十一難經』中 臟腑生理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6, p. 135.

와 表裏關係라 魄門이라'는 說에 대해서는 否定하였다. 곧 本難의 張山雷의 論述에서 張山雷의 解剖學的인 知識以外에 張山雷가 小學에도 精微하고 訓話에 뛰어났기 때문에 『內經』, 『難經』 등 經典中的 일부 글자, 單語, 文章, 病名 等に 대해 經史傳記와 『設文』 등 字書에 根據하여 病情 藥理를 결합하여 자세히 考證했고 그에 따라서 慣習的으로 잘못 전해오는 것들을 바로잡는 것을 볼 수 있다²⁸⁾.

【原文 45】

四十五難에 曰 經言八會者는 何也오

然이라 府會는 大倉이오 藏會는 季脇이오 筋會는 陽陵泉이오 髓會는 絕骨이오 血會는 鬲俞오 骨會는 大杼오 脈會는 太淵이오 氣會는 三焦外一筋直兩乳內也라 熱病在內者는 取其會之氣穴也니라

【考察】

本難은 八會穴에 대해서 論하고 있다. 八會라는 이름은 『難經』에서 처음 보이는 것인데 後世에는 이를 鍼灸治療에 應用하고 있다. 따라서 或은 本難이 『難經』의 俞穴篇에 配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가하는 境遇도 있으나 本難에서 말하는 藏府筋骨髓脈氣血의 精氣는 人體를 構成하는 生理的인 物質들 중에서 가장 重要한 것이고 그것이 모이는 곳이 八會이다. 따라서 本難의 理解를 단순히 疾病의 治療를 위한 鍼灸學的인 면만을 重心으로 보는 것은 不可하고 全體的으로 生理的인 側面을 가지고 理解해야 한다²⁹⁾.

張山雷는 八會에 대해서는 옛 醫學을 그대로 難經에서 받은 것인데 그 뜻과 말이 상세하지 않아 깨닫지 못했다 한다. 다만 太淵에 대해서는 太淵은 百病을 診察하는 곳이므로 알 수 있으나 나머지 일곱 가지는 注家의 說이라 옳게 알기는 어렵다 한다. 四明陣氏의 說에 대해 더욱 批判을 가하고

있는데 血會骨會 說明은 말도 안되며 '髓自腦下云云'은 腦髓, 脊髓, 骨中の 髓가 같은 種類가 아님을 몰라 하는 소리라 한다. 마지막 句에 대해서는 옛 사람들이 刺針하는 法이 된다 하였다.

【原文 46】

四十六難에 曰 老人은 臥而不寐하고 少壯은 寐而不寤者는 何也오

然이라 經에 言 少壯者는 血氣盛하고 肌肉滑하고 氣道通하여 榮衛之行이 不失於常이라 故晝日精 夜不寤也하고 老人은 血氣衰하고 肌肉不滑하여 榮衛之道가 滯이라 故晝日不能精 夜不得寐也라 故知老人不得寐也니라

【考察】

本難은 老人이 밤에 잠이 오지 않는 事實을 가지고 나이에 따른 榮衛氣血의 흐름의 差異에 대한 論述을 하고 있는데 그 內容은 『靈樞·榮衛生會』의 內容과 大同小異하다³⁰⁾.

張山雷는 『難經』에 '寤寐'로써 『靈樞』의 '晝夜'를 고치니 『甲乙經』의 "老人不夜瞑, 少壯不夜寤"가 맞고 徐靈胎가 틀리다 하였다. 營衛之道로 譬喩해 老人氣血이 모두 下流利하여 動靜이 平常과 달라 낮에는 精明하지 못하고 밤에는 잘 수 없다하였으니 맞다고 한다. 『甲乙經』에 "營氣衰少故也"라 하는데 '衛氣內伐'이라는 것은 衛氣가 陽氣解하고 陽氣는 外에서 行하는 것이니 『經』에서 "陽在外, 陰之使, 陰在內, 陽之守也"라 한다. 즉 陽氣가 外에 不宣해서 陰分으로 안으로 들어가 守하지 못해 밤에 잠 자지 못하는 것인데 '衛外之氣說'은 아니라 한다. "衛氣內伐"은 온당치 않다 보고 徐靈胎가 衛氣內伐에 衛外之氣를 인식해 寤寐의 이유를 說明할 수는 없다 한다. '氣不盛而力易倦' 또한 經에는 없다 하고 周澄이 "擾"를 "伐"로 풀어 陽氣가 어지럽고 陰에 미쳐서 夜間에 安정되고 潛하지 못해 잘 자지 못한다고 한 것 또한 衛外之氣 說이 아니라 한

28) 宋美令, 張山雷의 醫學思想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大醫院 博士學位論文, 2000, p. 96.

29) 金昌圭, 『黃帝八十一難經』中 臟腑生理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大醫院 碩士學位論文, 1996, p. 141.

30) 金昌圭, 『黃帝八十一難經』中 臟腑生理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大醫院 碩士學位論文, 1996, p. 147.

다. 『內經』에서 陽氣가 밤에 臟으로 行해서 밤에 陽氣가 潛藏한 說도 맞다고 하나 澄의 말 중에 ‘晝行於腑、夜行於臟也’는 오인해서 그런 것인데 臟腑의 氣를 晝夜 分析에서 말한 것에 대해서 晝에 腑에 氣가 있고 臟에는 없고 夜에는 臟에 氣가 있고 腑에는 氣가 없다고 한 것은 잘못 되었다 批判한다.

【原文 47】

四十七難에 曰 人面獨能耐寒者는 何也오

然이라 人頭者는 諸陽之會也니 諸陰脈은 皆至頸胸中而還이어니와 獨諸陽脈은 皆上至頭耳라 故令面耐寒也니라

【考察】

本難은 사람의 얼굴이 寒氣를 잘 견디는 것을 가지고 頭面部의 生理的인 特徵을 說明하고 있다. 本難의 內容은 『靈樞·邪氣藏府病形』에 나온다³¹⁾.

張山雷는 滑伯仁이 『靈樞』를 引用했는데 『甲乙經·四卷病形脈診篇』文인데 問辭만 빠졌다하고 “燠”은 『甲乙經』에서 “熏”이고 ‘大熱甚寒’은 『靈樞』에 ‘大熱’을 ‘天熱’로 誤謬라 한다. 『甲乙經』原文에 ‘精陽氣上走於目’ 등의 句가 語極浮泛이라 하여 사람의 얼굴이 寒氣를 견딜 수 있음을 說明할 수 없다 하였다. 六陽經이 위로 頭에 이름으로 說解하며 알게 드러낸 것이나 ‘頭爲諸陽之會’의 一句만 더하면 간단하고 足하다 하였고 『甲乙經』, 『靈樞』에 나온다 하였다.

IV. 結論

中西匯通 學派의 代表的 醫家인 張山雷의 『難經匯注箋正』中 臟腑生理를 논하고 있는 『第三十難』에서 『第四十七難』까지의 研究를 통해 다음의 結論을 얻었다.

1. 張山雷는 既存 中醫學의 큰 思想的 토대를 이루고 있는 陰陽五行論을 批判的으로 바라보며 『難經』을 特有的의 獨創性으로 再解釋하고 있는데, 營衛의 生成과 循環, 左腎右命門說, 心肺의 部位, 肝과 肺의 浮沈, 五藏과 聲色臭味液의 關係, 五藏과 九竅와의 關係, 五藏과 五主와의 關係, 營衛氣血의 虛實에 따른 老人과 小壯人의 生理的 差異의 內容에서 張山雷의 思想을 볼 수 있다.
2. 張山雷는 19世紀末에서 20世紀初에 西醫學이 전해지면서 中醫學의 危機가 찾아온 時代의 狀況 下에서 中醫를 바탕으로 西醫의 解剖學, 生理學을 참고하는 實事求是의 자세로 『難經』을 再解釋하였는데, 三焦의 機能과 部位, 大小腸의 位置 및 六府의 機能과 臟腑의 相合關係, 肝의 生理的 特徵, 臟腑와 消化管의 크기 容量 模樣, 七衝門, 八會穴의 內容에서 이러한 張山雷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3. 中醫學 發展이 沈滯된 時代 狀況 下에서 張山雷가 西醫理論을 利用해 再解釋함이 學問的으로 큰 反響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意味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張山雷 역시 西醫의 概念과 古醫의 概念을 混同하여 썼다는 점에서 批判의 余地 또한 있다. 계속하여 더 具體的이고 深度있게 比較, 考察한다면 많은 문제점을 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參 考 文 獻

1. 難經譯釋, 臺中, 昭人出版社, 1980.
2. 南京中醫學院, 黃帝內經素問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3. 南京中醫學院, 黃帝內經靈樞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4. 南京中醫學院, 難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9.
5. 丹波元簡, 素問識 素問紹識 靈樞識 難經疎症,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31) 金昌圭, 『黃帝八十一難經』中 臟腑生理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6, p. 151.

6. 唐湘清, 難經今釋, 臺北, 國立編譯館, 1967.
7. 唐容川, 醫經精義(中國醫藥匯海), 서울, 成輔社, 1978.
8. 徐靈胎, 徐靈胎醫書全集, 難經經釋, 臺北, 烏州出版社, 1968.
9. 徐靈胎, 難經經釋, 臺北, 五洲出版社, 1981.
10. 葉霖,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11. 金達鎬, 注解補注 黃帝內經 靈樞, 서울, 醫聖堂, 2002.
12. 金達鎬, 注解補注 黃帝內經 素問, 서울, 醫聖堂, 2002.
13.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55
14. 中醫學論文翻譯모임 옮김, 論文으로 보는 中醫學 總論, 서울, 法仁文化社, 2001.
15. 王琦, 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成輔社, 1983.
16. 王叔和, 脈經, 서울, 醫道韓國社, 1976.
17. 尹暢烈, 難經研究集成, 大田, 周珉出版社, 2002.
18. 李時珍, 本草綱目, 서울, 高文社, 1985
19. 李梴, 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1991.
20. 張景岳, 類經, 서울, 大星文化社, 1982.
21. 張仲景,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4.
22. 池田政一, 黃帝內經의 難經, 청흥, 2002.
23. 秦越人, 難經集注, 北京, 臺灣中華書局, 1985.
24.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25. 洪元植, 中國醫學史, 東洋醫學研究院, 1987.
26. 華佗, 中藏經, 中國, 自由出版社.
27. 皇甫謐, 針灸甲乙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9.
28. 黃元御, 難經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29. 滑壽, 難經本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30. 滑壽, 難經本義備要, 臺中, 文荃書局, 1984.
31. 黃維三, 難經發揮, 中國, 中國醫學院出版組, 1990.
32. 尹暢烈, 李南九, 金善鎬, 難經本義, 大田, 周珉出版社, 2003.
33. 本間祥白, 難經之研究, 正言出版社, 1965.
34. 金昌圭, 『黃帝八十一難經』中 臟腑生理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6,
35. 宋美令, 張山雷의 醫學思想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0.
36. 趙學俊, 『難經』의 學術成果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6.